

광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하위 등급 기록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서구, 1단계 올랐으나 하위권 광산구, 경영진단 대상 선정

지방 공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행정안전부의 올해 경영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광주·전남 지역 공기업 10곳 중 광주 서구·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가·마 5개 등급 가운데 '라' 등급이라는 부진한 점수를 받았다.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다' 등급을 받았다.

전국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42곳 중 마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서구·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셈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공기업의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다.

올해 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의 20여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합산 성적에 따라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기관별 평가 등급이 정해졌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마' 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한 단계 올랐음에도 전국 42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꼴찌인 4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공단이 지난 2021년 설립돼 출범 초기인 점과 최근 폐기물 요금 납부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직원이 돈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이 평가에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다' 등급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순위는 41위를 기록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과 광산구청장실 점거 농성, 노노·노사 간 갈등,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관련 민원 급증, 인사 불균형 등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등급이 추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는 올해 '다' 등급으로 지난해 '라' 등급보다 한 등급 상승했다. 전체 순위는 30위다.

자치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각 구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는 서구와 북구, 광산구 총 3곳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이중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기관 중 광주 지역에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됐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 규모 축소, 법인 청산,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께 경영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항목별 점수와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 수립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상아·윤준명 기자**

첨단 기술로 어르신 건강 살핀다 광산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광주 광산구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활용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핀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허약·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에게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앱인 '오늘 건강'과 건강측정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건소 간호사가 6개월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한다. 건강측정 스마트 기기는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총 4종이다. 손목시계형 활동량계와 체중계는 참여자 전체에게 지급하지만, 혈압계와 혈당계는 건강 진단 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광산구 거주 스마트폰 소지자 200명을 오는 9월부터 모집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측정기기 지원대상자, 아이폰 사용자는 제외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62-960-877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상철 기자**

정청상담 어르신 정신 건강 관리 서구, 매주 3회 방문 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는 독거노인 등 사회관계망이 적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시니어 안전수호단'을 운영한다.

7일 서구에 따르면 시니어 안전수호단 15명은 지난 2월부터 주 3회 65세 이상 돌봄 필요 대상자 100여명의 집을 방문해 경청상담 1100여건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담내용을 초기 만남부터 장기적으로 저장·관리하며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안내 및 연계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장기요양등급 등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조와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구는 안전수호단이 더욱 질 높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초당대학교 전리상 상담심리학 교수를 초청해 △효과적인 경청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자질 △상담윤리 및 상담기법 △활동 노하우 및 애로사항 공유 △사후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시니어 안전수호단 상담자들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경청상담 대상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어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공감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위터밤' 북구, 10일 비엔날레 광장서

광주 북구가 본격 여름철을 맞아 주민들의 일상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특별한 문화콘서트를 연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암동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여름 특별 프로그램 '위터밤'이 개최된다.

'비엔날레 문화콘서트'는 비엔날레전시관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에 계절마다 다른 주제의 문화 이벤트를 접목해 비엔날레 광장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육성하고자 운영되는 행사다.

이번 위터밤 프로그램은 폭염에 지친 지역민을 위해 기획된 이벤트로 미디어파사드 작품전시를 비롯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미디어파사드는 비엔날레전시관 외벽에 영상을 띄우는 빛의 예술로 이번 행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청 작품 5편 △광주미디어아트협회 작가 초청 작품 5편 △북구 제작 작품 1편 등 총 11편의 시각예술 콘텐츠를 주민에게 선보인다.

특히 북구는 주민들이 무더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바다분수 △위터 슬라이드 △야외 수영장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나무 물총 만들기, 부채 만들기, 위터 스티커 체험, 물총놀이 등 여름 맞춤형 체험 부스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존, 포토존이 제공되며 스트리트 댄스, DJ 공연 등 신나는 무대도 준비돼 있다.

진행순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각종 부대행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미디어파사드 작품전시가 펼쳐진다.

문인 북구청장은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와 더불어 물놀이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콘서트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지난해 8월 12일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내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남구 인권평화 축제 기림의 날 행사.

광주 남구 제공

남구, '할머니의 말씀' 기억하고 또 새깁니다

10~14일 남구 인권평화 축제 소녀상 앞 추모공간 운영 퀴즈대회·인권 영화 상영 등

'남구 인권평화 축제'가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내 잔디광장을 비롯해 관내 일원에서 진행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인권평화 축제는 근현대사의 산증인으로, 가장 슬프고 아픈 역사를 세상에 알리면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추진됐다.

남구는 기림 주간에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 '기억하겠습니다' 시민 자율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음에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분들과 힘들고 어렵게 고국 땅을 밟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점차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피해자의 삶을 반추하며 그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다.

피해자의 아픈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추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오는 10일 오후 3시와 8시에는 남구청 8층 대회의실과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우리 역사를 배우는 퀴즈대회와 인권평화 영화 상영회가 각각 열린다.

퀴즈대회는 청소년 자녀를 둔 20가족이 참여해 일제 강점기 역사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평화·통일 관련 문제를 풀면서 대한민국 역사 알기에 나서며, 오후 늦게 백운광장을 찾은 주민들은 버스킹 공연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관람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제7회 남구 인권평화 축제 본무대 행사와 기념식이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과 공예특화거리 잔디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주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 정치인 등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숭고한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역사의 기억으로 이어진 연대의 발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박찬기 기자**

동구, 도시농업 복합단지 '다정한 동구밭' 개장

야외 수영장·농작물 수확 체험 등

광주 동구는 최근 내남동 184번지 일원에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도시농업 복합단지 '다정한 동구밭'을 조성하고, 오는 10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유휴공간을 활용해 여

가를 즐기고 정서를 순화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시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마련된 '다정한 동구밭'은 유실수와 온실 정원, 쉼터 등을 갖춰 도심 속 다양한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개장 당일(10일)

과 다음날(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수영장과 미끄럼틀,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가족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해 줬으면 한다”며 “잡시나마 이곳에서 무더위를 잊고 힐링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